

자생바이오 "건강차로 일상에 활력을"

자생한방병원 가족사인 자생바이오는 프리미엄 건강차 '자생차 청채보감'과 '자생차 생화보감'을 출시했다. '자생차 청채보감'은 생강과 도라지, 백과 등 10가지 원료를 배합해 우려냈다. 답답한 목과 가슴에 상쾌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다. '자생차 생화보감'은 생화농축분말과 함께 고소함을 더하는 통청과 건대추채, 호두, 호박씨 4가지 고명을 담았다.



기아, 혁신적 구매 프로그램 담은 중고차 사업방향 공개

“기아 인증중고차, 한달 타보고 구매하세요”

기아가 일반차량과 전기차를 아우르는 고품질의 인증중고차 공급, 신차 구독 서비스와 연계한 중고차 구독상품 개발, 최신 모빌리티 서비스를 벤치마킹한 혁신적인 구매프로그램 등을 담은 중고차사업 방향을 18일 공개했다.

중고차매매업계의 동반성장 계획도 밝혔다. 기아는 2024년까지 시장점유율을 최대 3.7% 이하로 제한하는 등 기존 상생협의 과정에서 마련한 상생안을 준수하고, 중고차업계가 중고차시장 전동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미래차 관련 교육을 지원한다.



기아 인증중고차 디지털 플랫폼 콘셉트 이미지.

사진제공 | 기아

국내 최대수준의 품질 검사 거쳐 5년 10만km 이내 자사 차량 판매 중고 전기차 가치상장 기준 마련 한달 체험 후 구매 시 이용료 면제 중고차업계, 진출 반대 의견서 제출

●품질·서비스 수준 높은 '인증중고차' 공급

기아는 높은 품질 수준을 지닌 '제조사 인증중고차(Manufacturer Certified Pre-Owned)'를 시장에 선보인다. 5년 10만km 이내 자사 브랜드 차량을 대상으로 정밀진단과 함께 정비와 내외관 개선 등의 상품화 과정, 국내 최대수준인 200여 개 항목의 엄격한 품질 인증 검사 등을 거친다.

또한 까다로운 차량이력 확인과 정밀한 성능·상태 진단을 기반으로 정확한 차량가치 평가기준과 체계를 마련해 소비자들에게 신뢰도 높은 판매가격(fair price)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전기차의 경우 차량가격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배터리의 잔여수명과 안정성

등을 첨단 진단장비로 측정하는 후 최저성능기준(미정)을 만족하는 차량만 인증해 판매한다. 또한 전기차만의 '품질검사 및 인증체계' 개발과 중고 전기차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상장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경제적인 중고차 구독상품 개발

기존 신차 구독서비스 대비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중고차 구독서비스도 추진한다. 소비자들은 신차 구독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인증중고차를 구독할 수 있고, 신차보다 빠른 시점에 차량을 즉시 이용할 수 있다.

구매 전 한 달 체험이라는 혁신적인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기아는 중고차의 실제 성능과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먼저 최장 한 달간 차량을 체험해본 후에 최종 구매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선(先)구독 후(後)구매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고객은 구입을 희망하는 차량을 한 달 동안 내 차처럼 운행하면서 실제 차량 성능과 품질을 면밀하게 테스트한 후에 구매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최종 구매 시 한 달 간의 이용료가 면제되기 때문에 부담없이 차량을 장기간 체험할 수 있다.

판매채널은 디지털 플랫폼(모바일, PC 등)과 함께 인증중고차 전용시설인 리컨디셔닝센터를 판매 및 고객체험센터로도 활용해 온·오프라인 복합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다.

●2024년 시장점유율 최대 3.7%로 제한

기아는 상생협력과 중고차시장 발전 방안으로 ▲5년 10만km 이내의 자사 브랜드 인증중고차만 판매 ▲인증중고차 대상 이외의 물량은 기존 매매업계에 전량 공급 ▲연도별 시장점유율 제한 ▲중고차산업 종사자 교육 지원 등을 제시했다.

시장점유율은 2022년 1.9%를 시작으로

2023년 2.6%, 2024년 3.7%까지 자체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하지만 중고차업체 단체들은 현대차·기아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반대하고 있다.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 중고차업체 단체들은 15일 자동차매매업 허가증을 반납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중고차판매업을 생계형 직업업종으로 지정하지 않은 정부의 결정은 중고차 산업 특성을 무시하고 자동차 매매업계를 이해하지 못한 시대착오적 판단”이라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인수위 측에 전달했다.

이들은 또한 5년 10만km 미만 인증중고차 매물만 취급하겠다는 현대차·기아의 상생 방안에 대해서도 “알짜매물만 독점하겠다는 전략으로 결국은 중고차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제로플라스틱 어메니티부터 쓰레기 줍기까지 롯데월드, 친환경 기업들과 에코 캠페인 강화

롯데월드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친환경 기업들과 협업 에코 캠페인을 진행한다. 우선 19일부터 5월16일까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와디즈를 통해 친환경 여행 어메니티 '온리원 얼스키트'(사진) 펀딩을 진행한다. MZ세대에게 인기를 모은 '더 굿 바이브 로티' 캐릭터 IP를 활용해 친환경 스타트업 '서스테이너블랩'(브랜드 이든)과 제로플라스틱 여행 어메니티를 제작해 판매한다. 연간 약 2만 톤이 나오는 여행용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목표다. 1개 판매 시 인도네시아 열대우림 조성 나무 한 그루를 기부한다.

18일부터 30일까지는 걸음 기부 언택트 사회공헌 플랫폼 '빅워크'와도 협업 캠페인을 진행한다. 롯데월드 사업장별로 '제로웨이스트 실천', 서울스카이와 연계한 '전망대 서울스카이와 맑은 하늘 인증', '롯데월드 아쿠아리움과 함께 바다환경을 위한 쓰레기 줍기' 등을 실시한다. 걸음기부 앱 빅워크를 통해 참여 가능하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한국 P&G, 다우니 생화향기 컬렉션 출시



한국 P&G가 섬유유연제 '다우니 생화향기 컬렉션'(사진)을 내놓았다. 자연 그대로의 원료를

엄선해 생화를 담은 향기를 구현했다. 시간이 지나도 오래 지속되는 은은한 향이 특징이다. 빨래 직후의 좋은 향기가 오래 지속되기를 바라면서도 인공적이 아닌 자연스러운 향을 선호하는 소비자 니즈를 반영했다. 프리지아 앤 페어, 와일드 라벤더, 스프링 가든 러브, 클린 슴, 미스티크, 코튼 퓨어 러브, 오션 코랄 퓨어 러브 등 총 7개 향으로 구성했다.

위메프 신규 파트너사, 전년동기비 33% 증가

위메프는 1분기 새롭게 참여한 파트너사가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전체 파트너사 수익 역시 21% 늘었다. 지난해 2.9% 정률 수수료 정책 발표 이후 1년 동안 파트너사 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1분기 판매 상품 수도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다. 상품 수가 늘어나면서 방문 고객 수도 늘었다. 1분기 평균 MAU(월평균 방문자)는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했다. 한편, 위메프는 지난해 4월 업계 최저 2.9% 정률 수수료를 시행했다. 1분기 2.9% 정률 수수료를 적용받은 전체 파트너사 중 55%가 수수료를 80% 이상 크게 줄였다.

힘찬병원 '개원 20주년' 해시태그 이벤트



힘찬병원은 개원 20주년을 맞아 18일부터 5월17일까지 인스타그램 '힘찬병원 20주년' 해시태그 이벤트를 진행한다. #힘찬병원 20주년 해시태그와 함께 '힘찬'을 연상시키는 사진을 자기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된다. 20명을 추첨해 스타벅스 교환권을 증정한다. 2002년 인천 연수구에서 개원한 힘찬병원은 20년 동안 관절 및 척추병원으로 명성을 쌓아왔다. 현재 서울과 인천, 부산경남에 8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인천힘찬병원은 2021년 3월 종합병원으로 승격했다.

편집 | 신하늬 기자 myhukki@donga.com

아우디 e-트론 GT 콰트로, '월드 카 어워즈'서 '올해의 월드 퍼포먼스 카' 수상

역대 가장 많은 수상 기록 브랜드 '모빌리티 미래 잘 보여준 전기차'



아우디 e-트론 GT 콰트로

아우디는 순수 전기구동 쿠페 '아우디 e-트론 GT 콰트로'가 1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월드 카 어워즈'에서 '올해의 월드 퍼포먼스 카'를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아우디 e-트론 GT 콰트로'는 2022 '월드 카 어워즈'에서 '올해의 월드 전기차', '올해의 월드 퍼포먼스 카', '올해의 월드 자동차 디자인' 등 3개 부문에서 후보에 올랐으며, 이 중 '올해의 월드 퍼포먼스 카'

를 수상했다. 이번 수상으로 아우디는 5번째 '올해의 월드 퍼포먼스 카' 수상을 포함해 '월드 카

어워즈'에서 총 11번의 수상을 기록하며 월드 카 어워즈 역사상 가장 많은 수상을 기록한 브랜드로 등극했다.

'아우디 e-트론 GT 콰트로'는 아우디가 제시하는 지속가능한 모빌리티의 미래를 가장 잘 보여주는 4도어 쿠페로 진보적인 엔지니어링 기술, 감성적인 디자인, 혁신적인 기술, 안전성과 일상적인 실용성, 스포티한 주행 성능 등을 갖춘 전기차다.

아우디의 기술 개발 최고운영책임자인 올리버 호프만은 "아우디 e-트론 GT 콰트로"는 e-모빌리티의 지속가능성, 역동성과 매력을 증명했으며, 이것은 e-모빌리티에 대한 아우디 약속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라고 말했다.

원성열 기자

현대차, 후업계 최초 커뮤니티 기반 NFT 시장 진출

인기 NFT캐릭터 '메타콩즈'와 협업도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업계 세계 최초로 커뮤니티 기반 NFT 시장에 진출한다. 현대자동차는 고객에게 다양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한다는 계획 아래 현대 NFT 세계관 '메타모빌리티 유니버스'를 소개하는

영상을 18일 공개했다.

인기 NFT 캐릭터 '메타콩즈'와 협업한 NFT도 발행한다. 한정판 '현대X메타콩즈 콜라보레이션 NFT' 30개는 20일 발행되며, 파트너사 커뮤니티를 통해 선 판매 및 오픈씨(Open Sea)에서 후 판매될 예정(개당 1이더리움)이다. 메타모빌리티 NFT 수



현대자동차가 공개한 현대 NFT 세계관 '메타모빌리티 유니버스' 소개 영상. 사진제공 | 현대자동차

익금은 지속적인 프로젝트 운영 및 커뮤니티 홀더를 위해 사용된다.

현대자동차 NFT 전용 커뮤니케이션 채널도 구축한다. 트위터(hyundai_nft) 및 디스코드(discord.gg/hyundai-nft) 채널에서 실시간 소통을 이어가며 커뮤니티와 NFT 홀더 간 지속적인 혜택을 제공해 가상공간에서 NFT 자산 가치가 영위되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5월에는 NFT 전용 웹사이트도 오픈한다.